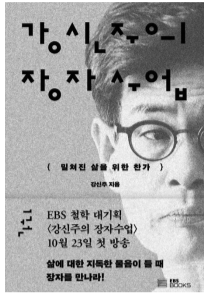


대붕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48편의 이야기

강신주의 장자수업 (1·2권)

강신주 지음



2500여 년 전, 중국대륙은 '천하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국시대였다. 군주들은 나라의 생존과 경쟁에 쓸모 있는 인재를 찾고, 제자백가(諸子百家)라 불리는 철학자들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말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장자만은 결을 달리했다. 같은 시대 철학자인 혜시는 장자에게 "그대의 말은 쓸모가 없네"라고 말한다. 이에 장자는 "쓸모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쓸모에 관해 함께 말할 수 있네"라며 이렇게 답한다.



철학자 강신주는 "장자의 정신은 우리 삶의 산소호흡기가 충분히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장자"라는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보라"고 권한다. EBS 1TV에서 방송되는 '강신주의 장자수업'.

"세상이 넓고도 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것은 발을 디딜 만큼의 땅이네. 그렇다면 발을 디디고 있는 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땅을 모조리 파고 들어가 황천에까지 이른다면, 그 밟고 있는 땅이 사람에게 쓸모가 있겠는가?"

교육방송(EBS)이 1년6개월에 달하는 기획·제작기간을 거쳐 최근 '강신주의 장자수업'을 활자와 방송으로 동시에 선보였다. 도올 김용옥의 '노자와 21세기'(1999년) 특강에 이은 철학 대기획이다. 철학자 강신주는 20년 전 '장자'로 박사학위를 마친 뒤 다시 장자의 사유를 속고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지금까지 여러 권의 단행본으로 펴낸 바 있다.

'강신주의 장자수업'(1·2권)은 '황천 이야기'부터 '나비꿈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48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장자는 자신의 사유가 무용(無用)하다라는 당대의 조롱에 '쓸모없음의 쓸모'를 말하며 맞섰다. 철학자 강신주는 인문학이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는 요즘 세대를

살피며 "바로 이때, 장자의 당당함은 우리 시대를 향한 준비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밥도 나오지 않고 쌀도 나오지 않는' 쓸모없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우리 삶은 행복하니까요. 시도 글도 그리고 사유도 그리해야만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고전 '장자'는 '한번 읽고 쉽게 잊히는 흥미 위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계속 자극하는 철학적인 이야기'이다. 철학자 강신주는 '노나라 임금과 바닷새 이야기', '배를 붙여서 항해를 건너려는 '빈배 이야기', '말 4필이 끄는 수레 1000대를 매어놓을 수 있는 '거북 이야기', '나비꿈 이야기' 등을 들려주며 독자들을 장자의 세계로 이끈다. '소요유'(逍遙遊-목적없는 여행)와 '오상야'(吾喪我-지금 나는 나 자신을 잃었다) 등과 같은 단어에 장자의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

장자는 '무용(無用)의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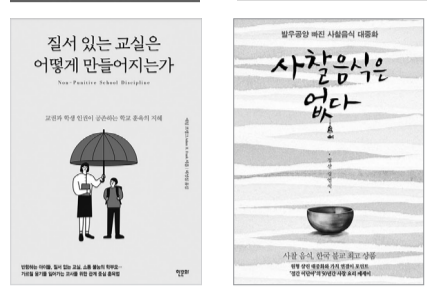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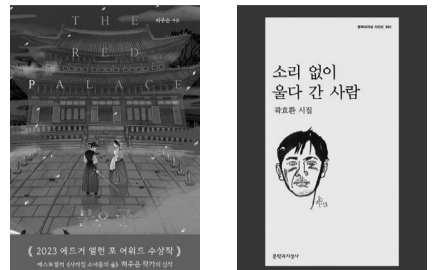
타자와의 관계를 고민했던 '타자의 철학자'였고, 문맥(context)에 주목했던 '문맥주의자'였다. 장자가 던진 메시지는 '쓸모와잉 시대'인 현재에도 유효하다. 그때나 2500여 년이 흐른 지금이나 '생존과 경쟁'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밀려진 삶을 위한 창가'라는 책의 부제가 더욱 눈에 들어온다.

자존감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은 '남에게 쓸모있는 길을 갈 것인가, 나를 위한 길을 갈 것인가'라는 삶에 대한 물음을 품는다. 철학자 강신주는 "장자의 정신은 우리 삶의 산소호흡기가 충분히 되리라 확신"한다. 그가 건넨 '장자' 48편 이야기를 들은 독자들은 우물 안에서 풀쭉풀쭉 뛰다가 마침내 우물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개구리, '풀쭉'이 되고 싶으리라. 한편 '강신주의 장자수업' 48강(40분)은 매주 월-목요일 자정 EBS 1TV에서 방송된다. <EBS BOOKS-각권 1만9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붉은공=공내에는 '사도세자'를 둘러싼 흥흥한 소문이 파다하다. 현판에 '저승전'이라고 쓰여 있는 공간을 통과하자 이 부자리 밑에 세자가 누워 있다. 의원들은 세자를 진맥한 뒤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과기스러운 이야기는 1758년 조선, 해민사에서 네 명 여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시작하는데 의녀 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정수를 위해 진범을 찾아 나선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스승 정수에게 묘한 감정을 느낀다. <시공사·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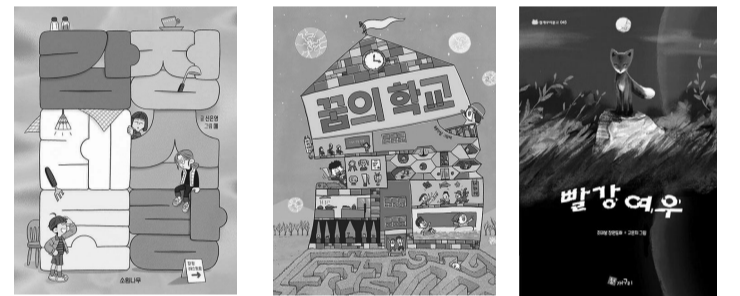
▲소리 없이 울다 간 사람=삶의 고통을 헤쳐나가는데 '영웅'들의 존재는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묵묵했던 평범한 사람들도 조명받아 마땅하다. 5년 만에 출간한 시집에서는 역사 속에서 삶의 터를 일궈낸 범인(凡人)들의 삶을 시적으로 조명한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건너던 이별, 백석과 윤동주 시인을 부르짖던 사람들, 강의 건너편, 노둔한 사람들, 독립과 민족 평화를 희구하던 민중들을 시화해 근현대사의 뒤결을 끌어낸다. <문학과학서사·1만2000원>

▲집서 있는 교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교과 추락과 맞물려 문제학생들의 행동을 다루는 방법론에도 세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선 교사부터 교장까지 모두가 학생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 '학교 훈육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학생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질서 있는 언어습관을 유지하며, 학생과의 관

계에서 너그러운과 단호함 중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한문화·1만5000원>

▲사찰음식은 없다-K-푸드 열풍은 한국의 채식 문화에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K-채식의 산실인 '사찰 음식'은 산사에 한정된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재가(在家, 일반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사를 관통해 온 영육의 식문화를 비판하면서 '사찰음식'의 근원적 정신을 찾는다. 전통적인 식사 의례에 따라 밥을 먹는 발우공양 정신이 깰수록 어떤 진정한 '사찰 음식'이라는 생각을 전한다. <인문공간·2만 원>

어린이·청소년 책



▲감정레스토랑=엄마 아빠의 다름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음이는 '감정 레스토랑'을 찾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빨강게 불 뿜는 엄마, 파랗게 질려버린 아빠 사 이로 '회색 헤드셋'을 끼고 지음이는 감정을 숨겨왔다. 그런데 감정 레스토랑은 무언가 다르다.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기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느끼고 현명하게 다루길 제안하는 식당에서, 지음이 가족은 하나로 섞여 간다. <소원나무·1만3000원>

서 수업 들을 수 있다면? 웃을 맛있게 입거나 음식을 맛있게만 먹어도 상을 주는 학교가 있다면 어떨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재미있는 글과 삽화로 묘사했다. <책읽는곰·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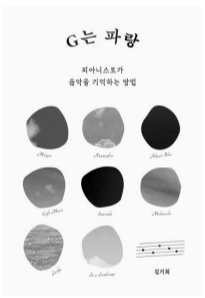
▲꿈의 학교=학교가 싫은 날, 교문까지 가는 길이 미로처럼 생기면 어떨까? 등교하지 못하는 좋은 핑계가 생길 것 같다. 여름에는 물 속에서, 겨울에는 이불 속에

▲빨강 여우=멸종된 '붉은여우'를 매개로 동물의 생명, 권리, 존엄에 대해 이야기한다. 꼬마 여우는 인간 사이에서 누렁개로 변신해 살아 간다. 어느날 우연히 엄마 여우를 죽게 만든 초집이 아저씨의 비밀을 듣게 되면서, 복수심을 갖고 그를 찾아 헤맨다. 여우는 말벌 등으로 둔갑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먹잇감을 찾아 나선다. <청구개리·1만2000원>

마음 어루만지는 편지와 함께 배달된 클래식·재즈 100선

G는 파랑

김지희 지음



얼마 전까지 매주 화요일이면 '음악편지'를 받았다. 인터넷 서평을 하다 우연히 알게된 메일링 서비스 '어쿠스틱 위클리(Acoustic Weekly)'다. 피아니스트 김지희가 선정한 클래식과 재즈 음악은 잔잔한 이야기와 어우러져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의 편지를 받고 '발견'하게 된 음악도, 새삼스레 다시 들어본 음악도 있었고, 누군가를 떠올려도 됐다. 그의 편지에 위로 받은 이들은 만 여명에 달했다.

마지막 편지의 아쉬움을 달래듯, 지금까지 그가 배달해준 음악과 글을 묶은 단행본 'G는 파랑-피아니스트가 음악을 기억하는 방법'이 나왔다. 지금 이 글은 라벨의 '보로딘 풍으로'를 들으며 쓴다. 저자가 음악편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음악이다. 어느 겨울 날 카페에서 우연히 이 음악을 들은 그는, '라벤더색 커튼' 같았던 음악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고, 일기보다 더 솔직하게 쓴 글을 함께 담아 편지를 띄우기 시작했다.

'몸으로 기억하기', '마음으로 발견하기', '음악으로 살아가기' 3부로 엮은 책에는 모두 100여곡의 클래식과 재즈 음악이 실렸다. 어렸을 때 "이야기가 많은 삶을 살기"를 꿈꾸었던 그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놓고, '감상'을 '감각하는 상상'이라 말하며 음악을 청각 뿐 아니라 시각, 촉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해 상상해 보라고 권한다.

책에서는 줄임앨범 뒷장에 "잘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글을 적어준 고등학교 은사를 떠올리며 선정한 그리그의 '첼로소나타 A단조', 소설가 백수린의 '여류의 발라'를 읽으며 들으면 좋을 것 같다면 전해준 포레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1번'을 만날 수 있다.

또 편안한 속도로 조금은 여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추천한 생상스의 '피아노 오중주 A단조 2악장', 달리기와 등산 음악으로 권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과 비발디의 '세상에 진실된 평화 없 어라', 세상의 모든 악보가 불에 타고 한 곡만 고를 수 있다면 주저 없이 선택한다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등도 실렸다.

특이하게도 이 책에서는 클래식과 함께 재즈도 소개하는데, 저자는 빌 에반스의 '더 피콕스(The Peacocks)'를 들려주고 싶어 두 장르를 함께 다루기로 결정했다. 피아노 음악을 즐겨듣는다는 택시 운전사가 추천해준 리처드 클레이더만과 라울 디 블라지오의 '아이의 마음'을 차 안에서 함께 듣고, 그를 자신의 공연에 초청한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깔끔한 글, 깨끗한 방처럼 맑은' 콘티의 '28'을 들으면 정화된 느낌이 든다.

편지를 받을 때도 느꼈지만, 이번 책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어쿠스틱 위클리'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월북·1만7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엔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NH 국민은행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